

소통과 배려로 새로운 안전을 창출하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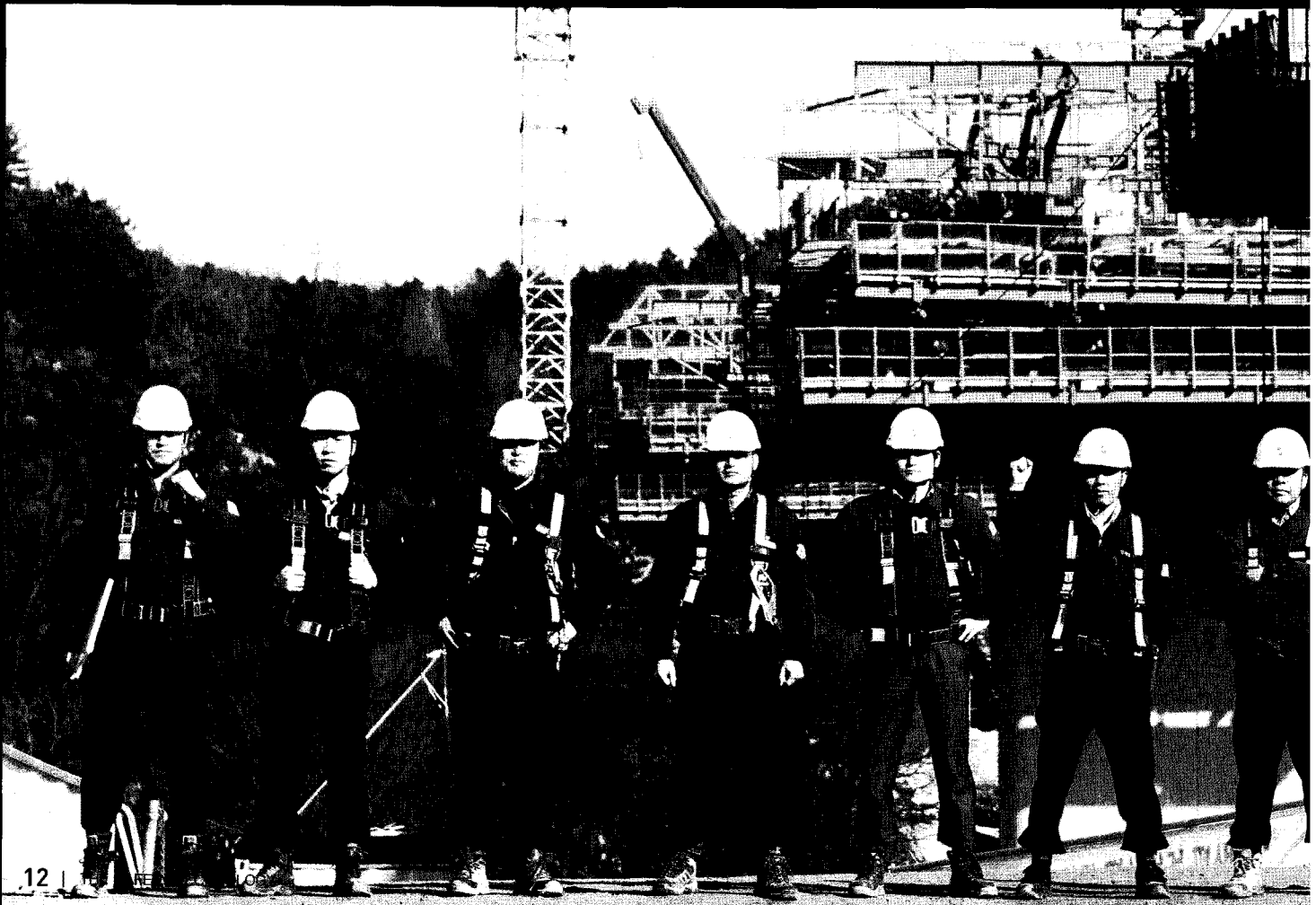
계룡건설 대전도안지구 동서대로(광로2-10호선) 건설공사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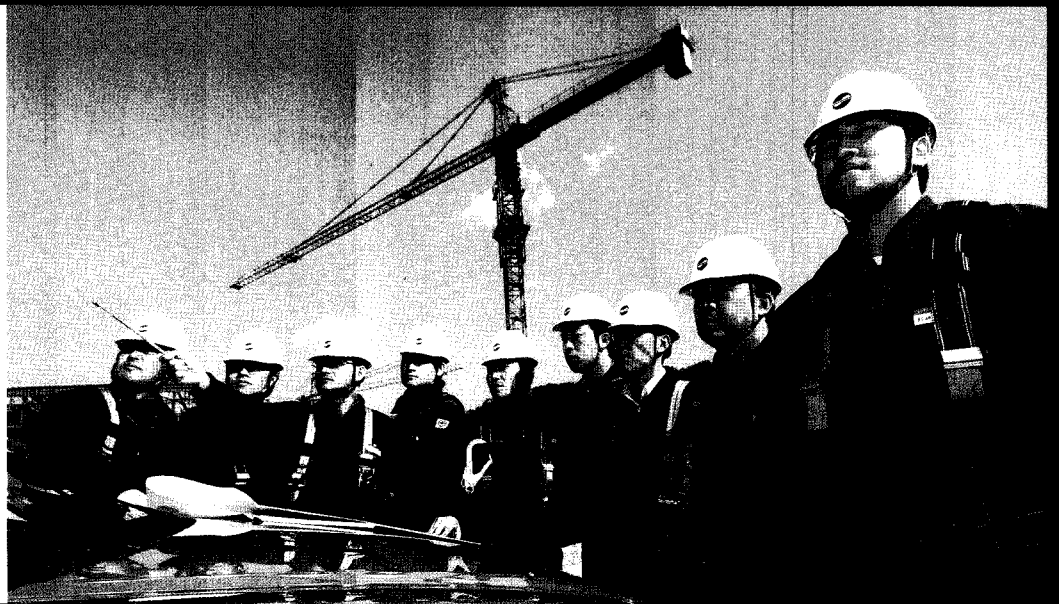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대전 서남부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안신도시가 한창 개발중인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벌써 입주자가 완료되면서 신도시로서의 면모가 차츰 갖춰지고 있다. 이 시기에 맞춰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터널공사와 교량 공사도 함께 분주히 진행되고 있다. 오늘 찾은 현장은 바로 터널공사와 교량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계룡건설 대전도안지구 동서대로 건설현장(현장소장 이기욱)이다.

총 연장 1.82km의 평도 4차선터널과 3백여미터의 교량 건설이 한창인 이 곳은 중장비가 연신 들락거리는 가운데 각종 차량과 인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안전시공, 무재해 시공에 연연이 없다.

"신바람 나게 즐기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는 계룡건설 대전도안지구 동서대로 건설현장(이하 동서대로 현장)을 찾아 이틀만의 안전 이야기를 들어 봤다.





따듯한 감성으로 시작하는 현장

이기옥 현장소장은 “할 것이 없어서 현장에 와 노가다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말을 강조한다. 현장 근로자 스스로 막장인생 취급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으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스스로의 안전도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소장은 현장에 처음오는 근로자에게 하는 행동이 있다. 근로자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안전보호구와 더불어 시린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장갑, 별판의 칼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목막이를 지급하는 일이다. 이 소장의 배려하는 마음은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

배려가 희망을 안겨준다

이러한 따듯한 감성적인 안전은 근로자의 마음을 열게 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현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먼저 진심 어린 대화로 설득과 격려를 하면 근로자분들도 마음을 엽니다.” 라는 천만봉 안전과정의 말처럼 대화는 마음을 열게하고, 자연스럽게 안전을 받아드리게 한다. 즉, 현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이룬다. 성공적인 준공도 있겠지만 동서대로 현장 사람들은 무재해 무사고 준공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달성해 나간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배려로도 이어진다. 과거 작업 도중에 크게 다친 한 근로자가 현장에서 성심을 다해 자신을 배려해주는 것을 보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마음을 추수려 희망과 함께 현장에 복귀했다는 사례는 이곳 현장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처럼 이들이 실천하는 배려는 절망을 희망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현장을 알아야 근로자의 안전도 챙긴다

동서대로 현장 사람들에게 있어 안전은 현장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려면 나부터 안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작업 상황을 이해하고 무엇이 위험하고 안전한 사항인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관리자는 보기 힘들다. 여기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찾아 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이 소장의 경영방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웠던 지난겨울, 해빙기 붕괴 위험이 높을 밖에 없는 토목현장에서 붕괴 사고 위



힘이 높은 터널과 절·성토부를 현장 직원과 협력사 직원으로 구성된 2개조가 매일 교대 점검하는 것이 이곳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안전시설, 점검 그리고 확인으로 위험공정 진척

터널현장 구간이 암으로 이뤄졌다면 시공 자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발파시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화약반입과 발파 시공은 안전사고의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철저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무실에서 발파시공 지휘 통제가 가능하도록 CCTV 설치의 기본이고, 사전 안전계획과 확인을 통해 안전작업을 한다.

또 이곳은 교량건설에서의 추락과 낙하사고를 대비해 적재적소에 빈틈 없는 안전망과 안전난간대를 설치해 놓은 것은 물론 작업 시작전, 중에 수시로 확인 점검을 통해 실시간 시정조치하는 안전전담반도 운영하여 동서대로 현장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무재해 준공을 염원

준공까지 2년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이 남았다.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의 기간에도 무사고 무재해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한결 같은 바람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 하나, 눈길 한번, 발길 한걸음이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에 확신을 갖고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션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는 이 소장의 마음속에도 무재해 준공을 염원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나 취재동안 느꼈듯이 현장 근로자의 마음을 따듯이 다독이는 푸근한 마음이 있는 현장이라면 이같은 염원은 현실로 거듭날 것이다. ☺

산업재해는 모든 것의 곱하기 제로다

제가 현장 일을 하면서 안전과 관련해 느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을 하다가 죽게 된다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준공을 한들, 아무리 막대한 보상을 준들 죽은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곱하기 제로와 같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 방향도 공법과 시대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해나가기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안전관리는 규제 일변도였다면 지금은 행동을 규제하기 보다 근로자가 하고자 하는 행동과 심리적 동선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불안전 행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근로자의 마음을 이해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때는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신뢰 그리고 믿음으로써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